

한국 다도 전통을 세우다

명원 김미희 조명서 나와... 5년간 200여 명 인터뷰

콜라, 커피, 홍차 등 음료는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우리 생활에서 떼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음료는 단순히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쌍용그룹 창업주 김성곤의 부인이었던 명원 김미희는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음료의 문화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양과 달리 동양은 예부터 차(茶)를 즐겨 마셔왔다. 명원은 이런 동양의 차 중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다도(茶道)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의 둘째 딸인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명원 김미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그를 재조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김의정 이사장은 5년 간 명원 김미희를 기억하는 200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와 동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 책에는 200명 중 45명의 증언이 생생히 기록돼 있다.

前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었던 박래부의 증언에 따르면 명원 김미희는 음료문화가 앞으로 사람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음료문화로 인해 한 나라의 문화발전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한다.

명원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참관을 위해 우연히 덴마크 왕실 오찬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수십 명의 종업원이 의상을 갖춰 입고 질서 있게 음식을 나르며 테이블을 세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선진국이 되려면 음식문화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원은 유서 깊은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다공을 익혔다. 명원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뒤 사회적 혼돈을 보면서 한국 차문화 부흥을 통해 국민의 정신문화를 풍성하게 해야 하는 절박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처음 다도를 접하게 된 곳은 확실히 일본이었다. 지금부터 15년 전(1952)에 일본을 여행하며 내가 관심있게 살피고자 했던 점은, 무엇이 일본을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인가 하는 것이었다. 마침 한 가정에서 정중한 차 대접을 받게 됐는데,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나는 일본인들의 숨겨진 위력을 보았

다. 차 대접이 끝난 다음 그들이 내게 물었다. '한국에도 다도가 있습니까?'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일화는 명원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1950~1980년대 명원 김미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우선, 학술적인 접근을 세우기 위한 관련 문헌과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조사했다. 당시 차 문화 연구자는 물론이며, 관련 자료 또한 전무한 시점에서 명원은 스스로 연구한 '한국 다도의 의식과 예절' '차에는 인간을 고결하게 하는 천성이 있다' 등의 논문을 남겼다.

또한 전통 차 문화의 실제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씨와, 김명길 상공으로부터 궁중다례를 전수 받고, 산사에 남아 있는 우리 차의 흔적을 찾아 전국을 뒤졌으며 민간의 수많은 다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명원은 차 문화의 복원과 보급에 힘을 기울이면서 문화·여성·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피폐해진 불교 사찰의 중흥을 지원하는 한편, 수많은 여성단체와 문화단체, 그리고 문화 예술인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한 여인의 삶의 자취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차 문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차사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 김의정 엮음 | 학고재 | 2만3000원 이은정 기자



명원 김미희(왼쪽)와 그의 남편 김성곤.

■ 저자 인터뷰 - 김의정

“책 준비하며 어머니 재발견”

“저에게는 어머니는 있으되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 가슴이 먹먹할 때에는 저의 소소한 일상을 들어줄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엔 그런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워 가끔 피병을 부리곤 했습니다.”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조계종 신도회장·사진) 이사장이 기억하는 명원 김미희는 항상 울퉁한 모습의 엄격한 어머니였다. 김 이사장은 “어머니는 늘 자식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10대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김명길 상공으로부터 직접 궁중다례를 전수 받았던 김의정 이사장은 “차 문화를 계속 복원하고 보급시키려”는 명원의 유지를 받아 명원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다.

김 이사장이 자신의 어머니를 회고하는 <차사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를 출간하게 된 것은 차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김의정 이사장은 “처음 어머니가 차에 대해 나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며, 가르쳐주실 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하기가 싫고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번 책을 발간하기 위해 5년 동안 차 역사 탐방을 하면서 어머니의 다례(茶禮)를 찾을 수 있었다. 일지암과 칠불사, 그리고 제주도의 도순다원과 서광다원을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감명 속에서 비로소 나의 어머니가 한국 다도의 선구자로 살았던 명원 김미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가을 바람 사랑 선율을 싣고



청량사 산사음악회 모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왔다. 가을을 맞아 여러 산사에서 청량사 바람과 어울릴만한 음악회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우선 산사음악회의 원조라 불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해 10월 2일 청량사 경내에서 열린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경복산간 오지의 깊은 산중에서 치러지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 산사음악회 중 하나다.

10년 동안 청량사 산사음악회 행사 진행을 담당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이번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스텝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멋진 무대를 꾸려왔듯, '10년을 함께 같이 늘 처음 그 느낌처럼'이란 주제로 2011년 첫 회에 출연했던 안치환, 한영애 등이 다시 출연해

청량사 산사음악회 10년

도리사·심곡암·갑사 등 풍성

뜻 깊은 무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30~40대의 젊은 불자들을 위해 가수 박강성, 소프라노 박소림 등의 무대가 2004년 창단된 뉴트리팝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의해 멋지게 공연될 예정이다.

이어 이종만 기획실장은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회 때부터 똑같은 스텝들이 계속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어 서로간의 우정들이 끈끈하다”며 “이러한 내공이 지금의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2008년 수해로 인해 2009년까지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청량사 내에 새롭게 단장한 선 체험관을 비롯해, 2010년 8월 25일 청량사 목조 지장보살이 보물로 예고되는 등 뜻 깊은 경사와 함께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산사음악회는 무조건 즐겁게 하는 것이 최고”라며 “미당 서정주 시인의 '열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시처럼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54)672-1446 이은정 기자

#산사음악회 일정

-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9월 25일 (054)474-3737
- △서울 심곡암 산사음악회 10월 16일 (02)914-8860
- △공주 갑사 가을 산사 음악회 10월 30일 (041)857-8981
- △인연 전등사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10월 2~10일 (032)937-0125
- △해남 미황사 미황사 음악회 10월 23~24일 (061)533-3521

한국의 인종차별을 고발한다

정지필 작가 '깜둥이' 사진전... 스페이스 선+에서 30일까지

스페이스 선+의 추천작가로 선정된 정지필 작가가 '깜둥이'란 주제로 9월 30일까지 사진전을 연다. '깜둥이'란 말은 흔히 흑인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작가는 이 전시를 통해 인종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는 “한국은 살인, 폭행, 테러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않지만 '단일민족'이라는 명목아래 어느 나라 보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며,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필 작가는 “영국 유희시절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반면 정작 자신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사람들을 제외한 저개발국 나라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을 나타냈다”며 “사람들의 인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이러한 이유를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꽤 발달한 나라일지는 모르나, 타 민족과 인종의 인권에 대한 이해나, 민족성을 앞세우면서 자신과 다른 것은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풍토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지필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범한 한국인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피부가 검다. 작가는 사람들의 웃는 모습에 피부만 검게 만들어 흑인에 대한 친근함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작가는 “관객들의 잠재의식에 작용해 있는 그들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지필 작가는 “작품들의 검은 피부는 단순히 흑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유색인종 및 저개발국 국가들, 넓게는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즉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말했다. (02)732-0732 이은정 기자

현지사 소개 그 두번째 이야기

겉에 한번 나오는 붓다회상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영산불교의 종지 및 사상과 5대 수행덕목



2010년 5월 부처님 오신날

■ 종지

팔정도 청명염로 삼계지존이고 남성부주 교주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삼계를 탈출하여 정도보살이 되며 나아가 붓다가 된다.

자력수행은 아라한이 한계입니다. 부처님의 외호와 큰 가피가 있어야만 보살과 붓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생동안 큰 선

근을 쌓아 붓다 회상을 만나야만 합니다. 당대 불과를 이룬 큰 스승이나 화신으로 인간 몸을 받아 오신 부처님이 계신 부처님 교단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곳 현지사가 바로 부처님 교단입니다.

■ 사상

종생은 스스로 업을 지어 육도를 윤회생사하며, 윤회생사의 주체는 영혼체이다. 불과를 이룬 부처님들은 마음안도 아니고, 마음밖도 아닌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지혜 복덕과, 원력과 자비, 향사의 신통과 위신력을 지니시며 천만억 아승기 색깔의 무량억종광 빛으로 이루어진 32상 80종호의 거룩한 모습의 우주적 존재로 계신다.

깨달음은 불·보살로 나아가는 공부의 시작이다. 윤회를 벗어난 불보살의 적멸계가 있다. 대적정삼매를 얻어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는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 4개의 경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영혼체를 가장 내면의 본체 영역까지 확연하게 보는 것, 이것은 붓다의 지혜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견성 후 보림을 마친 대수행자가 가는 아라한의 세계가 있으며 아라한을 지난 무루 대아라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타행과 팔정도 청명염로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타력으로 갈 수 있는 보살의 세계가 있고 보살이 무수한 생을 거쳐 보살도를 완성하고 보현행원을 실현하여 마침내 도달하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천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제는, 부부 각각의 친·외가족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조상영가님과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도 맑은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조상영가님들을 천도해 드리고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력으로 한단계씩 보다 높은 곳으로 올려 드립니다. 네번이면 무주고혼과 자육의 영가들을 하는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제입니다.

영산불교는 온 법계의 실상을 알려 육도윤회하는 주체인 종생의 영혼체를 완전히 알고 있기에 그 어느 종교나 그 어느 불교 종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매에 들어 직접 보고 알게 된 진실한 사상입니다. 오직 영산불교의 깊은 사상을 통해서만이 팔만 사천법문의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 5대 수행덕목(행동강령)

- 첫째,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를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스승을 공경한다.
- 둘째, 법의 계율을 묵숨처럼 지킨다.
- 셋째, 이웃을 사랑하고 이타의 보살행을 다한다.
- 넷째,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실천행을 우선한다.
- 다섯째, 부처님이 계시고, 또 우주적 구원력을 지니심을 태신같이 믿는다.

영산불교에서는 효와 충, 예를 주장하고 법의 계율을 묵숨처럼 지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고 수행자로서의 필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중생시킨 지혜와 공덕을 종생을 위해 회향하고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기를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익됨을 알아가고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혜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 영산불교가 지향하는 완전한 불교의 모습입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16쇄 | 37면 | 25,000원 365면 | 25,000원) - 한글·영어판, 일어판 1년제 대형서적 종교서적 부문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진실한 나, 영혼체의 비밀을 파헤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정에서 건네는 우리 자신의 비밀. 겉껍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省)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論)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 관음태고, 관음태고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의 삶,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깊은 보세(寶書).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고본 '관음태고'는 자녀 교육의 영역을 영아와 임신 전후의 기간까지 확장시킨 예비 부모의 필독서이다.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영산불교에서 자신있게 타락태고를 세상에 내놓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인간 실체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한평생을 좌우하는 영유아 시기의 교육 방법과 행복한 사후를 위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 칙천후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후후, 역사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칙천후후의 삶과 그 의미를 종교적 차원과 고종적 접근을 통해 밝혀 본다.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그녀가 불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되짚어 불교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